

하야시의 악기

하야시카타(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는 3 종류의 악기를 사용합니다. 북, 시노부예(대나무 피리), 데부리가네(손바닥 크기의 심벌즈)가 그것입니다. 하야시(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 연주는 항상 북으로 시작하는데, 고동소리와 비슷한 깊은 음이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리듬감을 줍니다. 북은 대형 리어카 같은 것에 실어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기 때문에 북을 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됩니다. 그 뒤로 시노부예 소리가 이어지고, 축제용 음악으로 친숙한 악곡이 연주되는데, 이와 함께 데부리가네의 높은 음색이 전체를 짝조여주듯 긴장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2 종류의 주선율을 반복해서 연주합니다.

북은 하야시카타의 행렬 속에서 항상 선두를 서며, 그 큰 소리는 네부타(축제용 장식수레)가 보이기 전부터 주변에 울려 퍼지고, 네부타가 지나간 후에도 울립니다. 하야시카타의 행렬에서 북 다음에 오는 것이 시노부예와 데부리가네입니다. 이 두 악기의 역할은 북의 반주와 하네토가 춤을 추기 위한 선율 연주입니다. 데부리가네는 높은 소리로 작게 울리며 튀는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